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매력 뽐내

무주군, 유엔 투어리즘 선정 기념 일본 여행 작가·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진행

무주군은 지난 6일과 7일, 일본에서 활동 중인 여행 작가와 여행사 관계자 등 30여 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무주 투어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 및 여행 전문 채널 등을 통해 무주를 홍보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유엔 투어리즘(UN Tourism)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을 기념한 것으로, '김장 담그기'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무주인성낙화놀이', 덕유산국립공원 '어사길 걷기' 등 무주의 자연·인문·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무풍면에서 진행된 '김장 담그기'는 한국의

대표 식문화인 '김장'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직접 느끼고, 케이푸드(K-Food)의 본질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로컬여행의 매력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

이번 팸투어는 단기적인 관광 유치에 그치지 않고, 한·일 간 지속적인 로컬문화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무주는 앞으로도 지역 자원 보호와 주민 상생, 그리고 국제적 교류를 통한 관광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은 세계 각지의 숨겨진 관광지 중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 발전을 보장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마을로, 무주군은

△항로산 자연휴양림과 남대천, 반딧불이 보호구역 등의 정경 자연환경, △한글풍류, 무주향교 등 전통문화 자원,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등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여행 마을,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환경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 로컬여행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표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덕유산국립공원, 향적봉 설악산, 무주자연동 계곡, 태권도원, 반딧불이, 머루와인동굴 등은 사계절 내내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무주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이 지난 7일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

기본사회 실현 위한 주거정책 소개

진안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진안군이 지난 7일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미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능한 지방자치 든든한 지방정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대회에서 진안군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을 소개했다.

군은 세대 맞춤형 주거정책을 본격적인 기본사회 실현의 출발점이자 공동체 형성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거가 단순한 생존의 공간을 넘어 지속 가능한 기본사회 실현의 기초라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직접 발표에 나선 전춘성 진안군수는 "용담면 건설로 68개 마을 1만 2천

여 명이 이주하며 인구가 급감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됐다. 하지만 군의 다양한 정책 수립과 노력으로 올해 들어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그 결정적인 원동력은 바로 기본사회를 향한 정책적 시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정책이 큰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주거, 교육, 공동체, 일터가 맞물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며 "지속 가능한 실행구조를 구축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세대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진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정책을 알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정책대회에는 70개 지방자치단체 중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

무주소방서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본서 3층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을 격려하고 소방인의 자긍심 고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37명이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1명(구원동센터 소방위 조장범) △소방청장 표창 2명(대응예방과 소방



교 조남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과장 정형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3명(소방행정과 소방교 김해성, 인성여현실업 격려하고 소방인의 자긍심 고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37명이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1명(구원동센터 소방위 조장범) △소방청장 표창 2명(대응예방과 소방

/무주=전문선 기자

이미옥 진안군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정책 개선 촉구

진안군의원 이미옥 의원은 지난 6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대상포진 예방접종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안군은 60세 이상 주민에게 생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의학적 근거 변화에 따라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며 "생백신은 예방 효과가 약 5년에 불과하고 고령층은 접종이 어려운 만큼, 대한감염학회도 사백신(싱그릭스) 접종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안군은 60세 이상 주민에게 생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의학적 근거 변화에 따라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며 "생백신은 예방 효과가 약 5년에 불과하고 고령층은 접종이 어려운 만큼, 대한감염학회도 사백신(싱그릭스) 접종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백신은 2회 접종으로 10년 이상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50만 원이 넘는 높은 비용 탓에 군민들이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60세 이전 생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백신 추가 접종 기회 부여, △60세 이후 생백신 접종자의 재접종 기준 마련, △사백신 접종비 일부 지원 또는 고위험군 우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미옥 의원은 "대상포진은 고령이 극심하고 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인 만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인 등 소방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63주년을 맞이하는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표창별 수상자는 △장관상에 장계 119안전센터 소방경 이동근 △청정상에 소방행정과 소방위 송관욱, 부경스카이파트 관리소장 조승주 2명 △도지사상에 대응예방과 소방사 이우재, 장수여성유용소방대 총무부장 김미자,



장수NH아파트 관리과장 이성충 3명 △소방서장상에 대응예방과 소방장 한민섭, 장계119안전센터 소방사 손세원, 장수119안전센터 소방교 구분창, 소방교 최하람, 장계남성유용소방대 박춘우, 반안여성유용소방대 총무부장 박미라, 현장대응단 소방교 김가연, 장수구조대 소방사 임수용 등 소방공무원 6명 및 의용소방대 2명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 포럼 개최

무주군은 지난 7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세미나실에서 2025년 무주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무주군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날포럼은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지역 중심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먹거리 생산 농가와 영양교사, 소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푸드플랜팀 박미향 팀장의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이해'를 주제로 한 지역파트너플러스 정현성 대표의 강의, 의성군의 '우수 지자체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김인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은 "먹거리 정책은 주민 건강과 지역경제, 그리고 환경을 포괄한다"라며 "무주군은 지역 먹거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남은 자원은 다시 지역 농업이나 환경에 환원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켜 먹거리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12일 개최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산악초터운홍삼실에서 '사회적경제의 실현, 우리는 어디에서 있나' 주제로 2025 진안군 사회적경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진안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국내외 사회적경제 전환 흐름을 공유하고, 진안군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기조강연은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아 '2025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 소장은 세계 협동조합의 해의 의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전환 방향, 지방의 대응 전략 등을 짚으며, 향후 사회적경제의 변화와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자료에서는 진안군의 사회적 경제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25 진안군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발표하고 진안군 사회적경제의 특징과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장수군은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군은 이번 매입을 통해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쌀 판매를 지원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강화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6일 번입면을 시작으로 △장계면·계북면(11일) △천천면(12일) △계남면(13~14일) △장수읍(14일) △산서면(24일~25일 3일) 순으로 읍면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올해 장수군의 공공비축미 총 매입물량은 3,861톤으로, 이 중 건조벼 1,981톤, 산물벼 1,870톤이 포함되며, 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해답쌀' 두 품종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